

발간사

위대한 책을 만드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알렉산드리아의 詩人 Callimachus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글들을 편집하여 내므로 읽는 눈 가진 이들의 독서욕을 일으키고, 시간을 빼앗으므로 그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죄악이 될지 몰라도 실은 그들의 영혼과 이땅의 기독교 지성을 위한 작지만 아름다운 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어설프고 서글픈 이 땅에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실은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나그네들에게 뭔가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어느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흑자는 복음을 주며 전도로 봉사하십시오. 흑자는 노래나 그림으로도 봉사하십시오. 흑자는 도시빈민가의 재활이나 농어촌 개혁으로 봉사하십시오. 마음이나 능력이 있으면 하늘의 별이나 동산 위의 달이라도 따서 주시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펜과 글, 그리고 가난한 마음 뿐. 그것으로 글을 쓰고

가꾸며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학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이 땅에 주려는 이는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마음과 선한 글을 주는 데 힘을 쏟으려 합니다. 펜촉을 갈기는 우리의 손을 내려다 보면 창백하기 그지 없습니다. 창백한 손들이 쓰는 글의 모습을 비관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펜과 글 그리고 창백한 손과 가난한 마음 -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역 땅에 나그네로 배회하다가 돌아온 제게 동역회 동지들은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이 땅에서의 기독교 학문의 수립과 정착, 그리고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부터 「통합연구」는 새롭게 단장되어 새롭게 출발합니다. 각호가 특집호로 나가면서 모든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속학문을 배우고 또 그것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우리의 눈과 머리를 어지럽히고 어둡게 했던 그런 학문과 사상에 선전포고를 하는 바입니다. 근대주의에서 내려온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학문과 현대의 과학절대적 사상과 물가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학문에 대해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싸움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와 글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사상의 찌꺼기들을 쓸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충만한 학문의 기초를 닦고 또 여러 학문분야를 개척적으로 수립해 갈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학문의 전당의 건축을 위한 튼튼한 기초공사를 망각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수립은 물론, 학문의 형이상학적 기초, 인식의 문제등을 깊이 생각할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심으로 주력하고 표방

하는 것은 학문의 시작도 하나님의 계시말씀에서, 또 학문의 방향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학문의 주(主)시라는 것이 우리의 학문적 신앙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개척적 몸부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아직 튼튼한 기초석 하나도 놓지 못하고 그저 땅파는 데만 열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지상을 불태우기 위해 굳이 일곱 개비의 성냥이 필요없다고 한 어느 생각있는 이의 말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땅뿐 아니라 하늘도 조금 놀랄 일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여러분과 독자제현께 말씀 몇마디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디 수는 적지만 마디 마디 마다 뜻이 깊습니다. 이 「통합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여 읽으십시오. 글로 써 주십시오. 또 널리 알리고 두루 퍼 주십시오. 그래서 몇장의 지편이 삼천리를 훨훨날아 깨닫고 뜻 모르는 자가 이 강산에 가득하게 해 봅시다.

91년

겨울이 깊은

편집인 전 광식 드림